



자동차 구입도 안방에서 홈쇼핑으로~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산다?”

최근 TV홈쇼핑 채널에 자동차가 잇따라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국산·수입차 모두 중저가 모델 위주로 홈쇼핑에 얼굴을 내밀면서 TV가 새로운 자동차 판매창구로 뜨고 있는 것이다. GS홈쇼핑은 22일 오후 8시20분에 GM대우의 2008년형 ‘라세티 The Style’ 판매방송을 편성했다.

GM대우 라세티·젬트라 X 등 GS 홈쇼핑 파격조건 내걸어

이는 지난 16일 방송분을 다시 내보내는 것으로, 자동차가 홈쇼핑 아이템으로 적절하다는 내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차 판매 당시 시청률은 같은 시간대에 비해 네 배 가량 급증했으며, 총 700여건의 구입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라세티’의 특징점을 소개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홈쇼핑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예약을

받기도 했다. 또 예약 고객에게는 영업사원이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해주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벌였다.

이에 앞서 GS홈쇼핑은 지난해 12월9일에도 GM대우 ‘젬트라X’ 판매 방송을 통해 900여건의 상담예약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60여대를 판매했다.

현대홈쇼핑도 지난해 10월 ‘TV모터쇼-현대자동차 특별전’을 열고 2008년형 ‘베르나’와 ‘클리’를 선보여 600여건의 상담 문의를 받았다.

수입차의 홈쇼핑 판매도 잇따르고 있다. 포드·링컨의 공식 딜러인 선인자동차는 21일 CJ홈쇼핑을 통해 ‘뉴 이스케이프 2.3XLT’를 판매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리스와 할부, 현금 일시불 판매 등 세 가지 판매 방식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리스의 경우 차값의 30%를 선수금으로 내면 36개월간 월 19만9천원으로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30대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선인자동차는 또 이날 구입 고객에게 25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 엔진오일 교환쿠폰, 내비게이션 등을 증정하는 등 잠재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벌였다.

당초 CJ홈쇼핑은 BMW, 렉서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판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의 딜러들이 전국 지역별로 나뉘어져 동일조건으로 차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포드의 단독 딜러인 선인이 선택됐다.

이미 수입차업계에선 2003년에 불보의 당시 딜러였던 프리미어모터스가 현대홈쇼핑에서 ‘S80’과 ‘S60’을 10여대 판매했다. 벤츠도 농수산홈쇼핑을 통해 2대의 차를 팔기도 했다.

이처럼 홈쇼핑이 자동차 판매창구로 급부상한 것은 최근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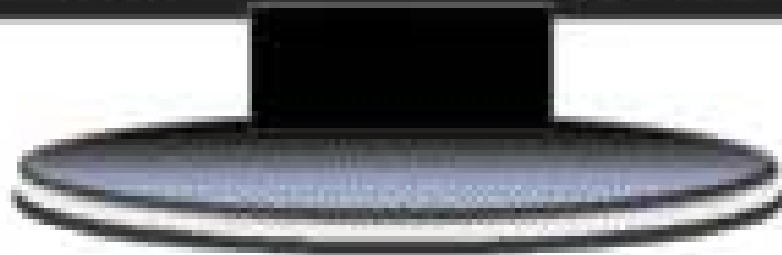
쇼핑의 매출액과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명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수준이 백화점을 능가하면서 수천만원의 고가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띄고 있다.

한편 홈쇼핑에 자동차가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GS홈쇼핑이 수입 승용차를 내놓은 게 최초 시도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CJ홈쇼핑이 르노삼성차 등

CJ 홈쇼핑도 수입차 판매 돌입 주유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제공

을 선보이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차량 구매의 주도권이 여성으로 넘어가면서 홈쇼핑 마케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국산차는 소형차, 수입차는 3천만원 안팎의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향후 판매 모델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뉴 다마스·뉴 라보’ 경상용차가 뜬다

경차 혜택에 LPG 엔진 장착...고유가 파고 속 ‘인기몰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뉴 모닝’과 ‘마티즈’ 등 경승용차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경승용차인 ‘뉴 다마스’와 ‘뉴 라보’도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GM대우차는 지난 3일 ‘뉴 다마스’와 ‘뉴 라보’의 예약주문에 나선 이후 10일간 2천200여대의 계약고를 올렸다.

두 차량 모두 다양한 경차혜택과 함께 연료가격이 저렴한 LPG 엔진을 장착하는 등 고유가의 파고 속에 ‘서민의 발’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 다마스’(7인승 기준)와 ‘뉴 라보’(통카고 기준)는 연비가 각각 11.5km/ℓ, 12.2km/ℓ에 달한다. 이는 기존 모델에 비해 연비가 각각 8.5%, 14% 향상됐다.

이들 차량은 새롭게 개발된 두 개의 엔진제어장치(ECU)를 장착해 불필요한 배기가스를 줄이는 대신 엔진 효율은 높였다. 또 운전상황에 필요한 정확한 연료량을 측정해 연료를 엔진 연소실로 직접 분사하는 친환경 LPG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했다.

이밖에도 두 차량은 직접점화방식(DIS)과 전자제어식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등을 채택해 엔진의 이상 연소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다마스’와 ‘라보’가 지난해 1월 대폭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해 생산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중고차시상에서 ‘다마스’와 ‘라보’의 가격이 20~30% 가량 뛰는 등 경승용차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차

량가격은 ‘뉴 다마스’는 745만~793만원이며, ‘뉴 라보’는 615만~702만원이다.

한편 올 들어 경차인 기아차 ‘뉴 모닝’은 하루 평균 1천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GM대우 ‘마티즈’도 하루에 350대 가량 계약되고 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두 차량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편, 성능과 연비도 크게 개선된 만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6 / 010-722-0100

1021530-9999